

조선희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

박성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박사

목차

- 1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의 출현과 재현
- 2 『세 여자』에서 재현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
 - 2.1 주체의 서사에서 선택적 삭제까지: 허정숙
 - 2.2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주세죽, 고명자
- 3 묻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서발탄이 된 여성 혁명가들

이 자리를 빌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항일운동과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여성들이 조선희의 소설 『세 여자』에 재현되었다. 1920년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당대에는 혁명가나 운동가가 아니라 신여성 담론에서 연애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소비되었다.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성적 존재로 남은 이 여성들의 표상은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수용되었다. 분단체제에서 오랫동안 망각되고 침묵을 강요받은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1920-30년대 형상화된 표상으로 남아 전달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수정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반공주의 시대는 물론 현재도 문학에서 재현되기 어려운 공산주의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재현한 『세 여자』는 망각된 역사의 복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공산주의자 여성들의 서사는 기록의 부재로 ‘볼 수 없고’, 기억의 상실로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 그들을 재현한다는 것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당대의 기록과 기억 속에 대상화된 공산주의자 여성을 주체의 자리에 놓고 사유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여자』에서 허정숙이 자기 삶과 역사에서 일관되게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주세죽과 고명자는 시대적 불운 앞에서 좌절하며 주체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허정숙과 주세죽, 고명자가 식민지 조선에서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 세 여자에 대한 당대의 표상과 일치하게 된다.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잊혀진 이후의 행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세 여자가 남긴 자기서사와 역사적 기록, 증언의 유무는 그들의 서사를 재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자기서사와 증언이 결여된 공산주의자 여성의 경우 그들의 서사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식의 창이 필요하다.

국문핵심어: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 공산주의자 여성, 정치적 주체

1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의 출현과 재현

3·1운동은 여성이 정치적 존재로 부상하게 된 역사의 획기였다.¹ 3·1운동으로 검거된 여성은 471명²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검거되고 투옥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고 3·1운동이 확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³ 이 중에 절반은 보통교육 이상을 받은 여학생이었으며 또 이들 중 상당수는 1920년대 공산주의자⁴가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계급혁명과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3·1운동은 식민지 조선에 항일운동으로 정치적 각성을 한 여성들이 조선의 독립과 사회혁명을 꿈꾸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⁵을 출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3·1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 각성한 여성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경로는 다양했다. 정종명은 조선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정칠성은 일본에서, 허정숙과 주세죽은 상해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왔다. 또 고명자·김조이·김명시는 조선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어 모스크바에 유학을 다녀왔다. 이들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해방운동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이었고 비합법

-
- 1 김정은은 3·1운동을 통해 학생과 여성, 어린이가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다고 보았다. 김정은,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98-109쪽. 소현숙은 3·1운동을 통해 여성이 ‘거리’와 ‘감옥’이라는 정치적 공간으로 진출한 점과 친족의 네트워크를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여성이 정치 주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다고 보았다.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학논총』 제5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385-414쪽.
 - 2 남성 검거자는 19,054명이었다. 조선헌병대사령부 편, 『조선3·1독립소요사건』(소화 44년), 압남당서점, 1969, 447-448쪽.
 - 3 김정은, 「3·1운동과 그 이후, 여성의 현실 참여」, 『인문과학연구』 제28호,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2쪽.
 - 4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공산주의자라 함은 당대의 언론과 대중이 그들을 ‘붉은 사상의 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인식하였고 그들 또한 그 명칭을 거부하지 않았던 당대성을 반영했다는 점을 밝힌다.
 - 5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친일로 돌아섰던데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항일운동의 맥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자는 대중에게 항일독립운동가로 인식되어 호감도가 매우 높았다. 식민지에서 공산주의 활동은 항일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적인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다.⁶ 그러나 당대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공산주의 혁명가나 여성운동가가 아니라 ‘신여성’ 담론으로 더 주목을 받았다. 신여성은 자신들의 활동이 아니라 자유연애와 결혼, 이혼 등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고 스캔들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다.

신여성 중 급진적 자유주의자 여성들⁷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비난과 불행한 개인사가 겹치면서 1930년대 공적 담론의 공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⁸ 그러나 급진적 자유주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글을 남겼고 그들 주변의 남성 문인들 또한 그들에 대한 글을 남김으로써 당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신여성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⁹ 나혜석의 표현처럼 “칼자루를 쥔” 남성들에 의해 소문과 스캔들, 악의적 비방으로 난도질 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칼날을 쥔’ 여성이 상처를 감수하고 자기서사를 남겼던 것이다.¹⁰ 그 결과 1세기가 지난 지금 당대 지식인 남성들이 신여성을 인식하는 담론의 지형을 이해하고, 신여성이 당대 사회에서 받는 억압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 의지를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축적되었다.¹¹

6 정종명·정철성·허정숙·주세죽은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에 참여하였고 이후 주세죽을 제외하고 근우회에 참가하여 여성운동을 이어나갔다. 정종명은 북풍회와 관련을 맺었고, 주세죽·고명자·김명시·김조이는 조선공산당과 연계되었고, 정철성과 허정숙은 비합법 활동 단체에 가담하지 않고 연대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지원했다.

7 나혜석, 김원주(김일엽), 김명순 등이다.

8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33-34쪽.

9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10호,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 2006, 51쪽.

10 급진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나혜석은 1933년 2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발표한 「모델—여인일기(女人日記)」에서 “남자는 칼자루를 쥔 셈이요, 여자는 칼날을 쥔 셈이니 남자 하는데 따라 여자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지. 고약한 제도야”라고 말했다. 이후 나혜석은 1934년 『삼천리』 8월호와 9월호에 「이혼 고백장」을 발표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장영은은 나혜석이 “칼자루를 쥔 남성 중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칼날을 쥔 여성들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글을 남겨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영은, 「서문—자기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의 탄생」, 나혜석,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민음사, 2018, 8-9쪽.

11 일제시대 신여성 담론은 그 담론이 생산된 사회적 토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주를 이루는 특정 담론 외에 주변적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상경, 앞의 글, 51쪽.

공산주의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단발과 자유연애, 이혼 등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샀고 소문과 스캔들의 대상이었다.¹² 그러나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급진적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여성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을 펼치면서 공적 글쓰기로 대응했을뿐 개인적으로는 소문과 스캔들에 대응하지 않았다. 1920년대 신문과 잡지에 활발하게 글을 썼던 허정숙과 몇 여성들을 제외하고 글을 남긴 여성도 드물었다. 그리하여 현재 이 여성들을 이해를 위해서는 당대 언론에 노출된 사건과 이미지, 당대 문학에서 재현되었던 양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

당대 공산주의자 여성에 대한 관심사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1930년 11월호 『三千里』에 게재된 “男便 在獄·亡命 中 妻의 守節問題”라는 설문이었다.¹³ ‘입옥자의 아내’, ‘망명자의 아내’로 거론된 여성들은 다수가 공산주의자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수절’ 논쟁은 문학에서도 재현되어 이광수는 「혁명가의 아내」(1930)에서, 현진건은 「연애의 청산」(1931)에서 공산주의자 여성을 ‘병든 남편’과 ‘감옥에 있는 애인’을 두고 성적 자유를 누리며 ‘수절하지 않는 여성’으로 표상했다. 또 이효석은 「오리온과 능금」(1932)에서 공산주의자와 연애하면서 이념을 수용하는 여성을 통해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여성의 정체성을 공산주의자 여성에게 덮어 씌웠다. 이렇게 1930년대 문학에서 재현된 공산주의자 여성은 ‘문란한 성욕의 화신’으로 그려지면서 그들의 신념이나 활동, 내면의 문제는 관심 밖의 영역으로 밀려났다.¹⁴

당대 남성중심사회가 신여성을 대상화하고 몰이해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는 신여성 담론에 섞여 문학작품에 남겨졌다. 이 여성들은 공산주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 1930년대 중반부터 공적인 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급진주의 여성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활동

12 1931년 7월호 『삼천리』는 『현대여류사상가들—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에서 허정숙, 황신타, 주세죽, 남수라, 현계옥, 정학수, 고명자, 정철성, 심은숙, 조원숙, 정종명, 우봉운 등의 연애사를 상세하게 다뤘다.

13 「男便 在獄·亡命 中 妻의 守節問題」, 『삼천리』 제10호, 삼천리사, 1930.11, 36-41쪽.

14 장영은,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제6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92-201쪽.

을 접고 은둔생활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 무장투쟁에 가담하거나 국내에서 지하 활동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중의 시선 앞으로 돌아온 것은 8.15 해방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된다. 분단과 전쟁의 혼란한 정국에서 살아남은 다수의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북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에서는 기록이 삭제되었다. 해방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공산주의자 여성들 또한 세상에 드러날 기회도 없이 지하의 세계에 잠금되었다. 결국 1930년대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에서 재현된 공산주의자 여성의 표상은 사실 확인이나 반박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박제된 상태’로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렇게 잊혀졌던 여성 혁명가들이 시간을 뛰어넘어 2000년대 신여성 연구에 힘입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선행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허정숙, 정철성, 정종명, 주세죽, 고명자 등의 공산주의자 여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¹⁵ 그러나 금지된 시간만큼 그들에 대한 기록은 유실되었고 그들에 대한 증언을 수집할 기회도 놓쳐버렸다. 현재 생애사를 구성할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허정숙과 몇 여성에 불과하고, 다수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기록의 파편을

15 송진희,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41쪽; 신영숙,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166-177쪽;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0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81-117쪽; 권수현,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 연구』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2010, 247-283쪽; 이소희, 「‘나’에서 ‘우리’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89-148쪽; 박순섭, 「1920~30년대 정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26호, 한국여성사학회, 2017, 245-271쪽;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여성(3)』, 창작과비평, 1989, 255-280쪽; 이꽃메, 「일제강점기 산과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醫史學』 제21권 3호, 대한의사학회, 2012, 551-591쪽; 임정연, 「망명도시의 장소상실과 좌초하는 코즈모폴리탄의 초상—주세죽과 상해, 그리고 모스크바—」, 『국제어문』 제77호, 국제어문학회, 2018, 31-56쪽; 이성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고명자의 생애와 활동」, 『인문학연구』 제8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47-274쪽. 위에 열거한 논문 외에 다른 인물과 비교 연구한 논문이 일부 존재하지만 허정숙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주의자 여성에 대한 연구의 양적 축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발굴하고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산주의자 여성의 삶과 이념을 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재현하는 일은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희의 소설 『세 여자』는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라는 당대의 공산주의자 여성의 관점에서 “혁명의 서사를 재구성”한 실험적 작품에 해당한다.¹⁷

한반도의 근현대사에서 혁명의 시간과 사건이 재현될 때의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었다.¹⁸ 그 남성들 옆에 조력자로 등장했던 여성들이 『세 여자』에서는 모두 주체의 자리에 서서 여성서사를 말한다. 이 자리바꿈은 1930년대 남성의 시선에서 타락하고 퇴폐적이던 ‘모던 걸’로 형상화되었던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혁명가’의 위치를 찾았다는 뜻에서 그 의의가 깊다.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의 시선으로 답론화된 공산주의자 여성의 표상이 단절된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여성적 시선에서 재맥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글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세 여자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세 여자의 서사를 재현함에 있어 자기서사와 기억(증언)의 유무가 서사의 불균형적인 재현 조건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세 여자』에 재현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

조선희의 소설 『세 여자』는 1991년 박현영과 주세죽의 딸 비비안나 박이 한국을 방문하여 어머니 주세죽에 대한 질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비비안나 박은 어머니가 식민지 조선의 혁명가였다는 것과 옛 소련에서 정치범이었으며 유형수

16 다수의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해방 후 월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허정숙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내각에서 주요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북에서의 활동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생사 확인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도 덧붙여지고 있다.

17 오혜진, 「여성혁명가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조선희의 『세 여자』—20세기의 봄』 1·2,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83쪽.

18 여성이 서사의 주체였던 영화 〈암살〉 이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현상은 혁명과 항쟁이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러시아로 돌아가 어머니의 신원조회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어머니의 침묵이, 그 고독이 무서웠다”고 조선희는 비비안나 박의 느낌을 대신 전했다.¹⁹

작가가 주세죽의 딸 비비안나 박을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세죽이 딸에게조차 자신의 행적을 숨겼던 개인적인 이유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질문은 왜 ‘식민지 조선의 여성 혁명가’는 말하지 않았는가, 아니 말할 수 없었는가로 이어진다. 이 의구심에 답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공산주의자 여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기록은 볼 수 있음과 없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는 일차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음과 없음이 기록의 유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에 있는 표층과 심층의 균열을 발견하고 개연성을 확보하는 인식체계와 관련이 있다. 공산주의자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신문과 잡지에서 거론되거나 그들이 기고한 글과 논쟁들, 그들이 투옥된 사건 기사와 재판기록, 그리고 여성들의 자기서사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증언자들의 기록을 포괄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비합법활동을 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남성들에게 할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여성들은 볼 수 있는 행적도 불분명하다는 난관이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여성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재현한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간극을 어떻게 채우는가가 중요하다.

조선희는 이 소설에서 “이름 석 자로 나오는 사람은 모두 실존인물”이며, “역사기록에 반하는 상상력은 자제했고 ‘소설’이 ‘역사’를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밝혔다.²⁰ 기록과 기록 사이에 ‘개연성’ 있는 상상력을 채워넣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2.1 주체의 서사에서 선택적 삭제까지: 허정숙

19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1, 한겨레출판사, 2017, 8-15쪽.

20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2, 한겨레출판사, 2017, 375쪽.

이 소설에서 기록에 가장 충실하게 재현된 인물은 허정숙이다. 1902년 변호사 허헌의 딸로 태어나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1920년대 고베, 상해, 모스크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돌며 수학했다. 5개 국어에 능통했던 허정숙은 『동아일보』사 최초의 여기자였으며, 여성동우회와 근우회 활동을 하며 여성계몽 강연가로, 사회주의 여성이론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허정숙의 표면적인 활동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허정숙은 1920년대 초 상해에서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주세죽 등과 함께 고려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동맹 활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1925년 조선공산당창당대회의 개최를 위해 일제의 관심을 흠어놓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다. 허정숙이 조선공산당과 직접 관련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남편 임원근이 조선공산당 산하 고려공산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²¹ 허정숙은 ‘서울여학생만세운동’²²으로 구속되었다가 가석방으로 나와 출산을 한 후 다시 수감되어 형기를 마쳤다. 출옥 후 아버지와 태양광선치료소를 운영하며 일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허정숙은 1935년 돌연 최창익과 함께 남경으로 떠나 무장투쟁에 가담하였다. 해방이 되고 1945년 12월에 북으로 귀국한 허정숙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선전상으로 임명되어 북의 내각에서 정치활동을 이어나갔다. 1956년 연안과 숙청과정에서 ‘전남편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최창익을 공개비판하며 살아남았으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1965년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온 허정숙은 1989년까지 활동하였고 1991년 사망했다.

21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2001, 223쪽.

22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3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1929년 10월 30일 나주총독과 11월 초 광주에서, 2단계는 1929년 12월 초 서울의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3단계는 서울의 여학생들이 벌인 시위운동이었다. 허정숙은 3단계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을 지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근우회의 정종명, 박차정 등도 검거되어 ‘근우회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해령이 명명한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을 따른다. 이해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제6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56-59쪽.

『세 여자』는 허정숙의 생애사를 따라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당대에 언론과 기록에 충실하게 재현되었다. 허정숙이 1920년대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사회운동은 여성해방운동이었다.

1. 우리는 지나간 날의 미지근한 감정을 내어버리고 정열 있고 예민한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개성을 살릴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여성이 되자.
2. 완전한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중 노예를 만드는 우리의 환경에 반역하는 절실한 자각이 있자.
3. 이 절실한 자각 밑에서 우리 여성은 서로서로 처지가 같은 여성들끼리 함께 결합하여 여성의 위력,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이자.²³

위 글은 허정숙이 편집장으로 있었던 『신여성』에 1926년 1월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여성이 실천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허정숙은 봉건사회에서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감정’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근대의 여성주체가 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당대 여성이 처해있는 ‘반봉건-반제’의 이중 억압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여성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주체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것은 당대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까웠다. 극소수의 여성만이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허정숙은 교육의 필요성을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며 강연을 다녔다. 이와 같은 활동상이 연구되면서 허정숙은 현대 여성운동사에서 “한국적 페미니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다.²⁴

당대 미국을 경험했던 몇 안 되는 여성으로서 허정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

23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1, 130쪽.

24 권수현, 앞의 글, 247쪽.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 논문 참조.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회, 1992, 278-287쪽; 신영숙, 앞의 글, 166-177쪽;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 367-419쪽.

순과 그 속에 인형처럼 살아가는 미국 백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자본주의 속의 여성의 처지를 짚어내는 공산주의자의 면모도 드러났다.

“음, 나도 미국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이 에티켓이니 청결이니 민족주의니 광대한 영토니 찬미하는 소리를 귀에 길이 나도록 들었지만 솔직히 나는 뭐 별로더라구. 백인들한테나 낙원이지 흑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처지가 비슷해. 여자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것 하나는 부럽드만. 하지만 뭐든지 돈, 돈이야.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지. 여기는 교육이나 법률이나 종교나 정치나 모든 게 다 자본가들 위주로 굴러가. 여자들도 자유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다 자본주의의 인형인 거야. 돈 먹는 인형이지.”²⁵

미국을 다녀온 후 허정숙은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²⁶에서 “임의 자재(任意自在)한 인형이면서도 역시 감각이 있는 울 줄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라며 비록 의견을 자유로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부러웠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 여성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한정되었음을 지적했다. 김경일은 허정숙에게 미국체험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운동과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선에 돌아와 근우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후 사회 운동의 길이 막히자 중국으로 가 무장투쟁으로 이어진 행보에 미국 체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²⁷

미국에서 돌아온 허정숙은 1930년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을 지도하면서는 ‘항일운동’에 대한 열의도 숨기지 않았다.

“너는 어째 겁이 없냐. 겁님이라고는 약으로 쓸래도 도통 찾아볼 수가

25 조선희, 앞의 책, 175쪽.

26 허정숙,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별건곤』, 제10호, 개벽사, 1927.12, 74-77쪽.

27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244-247쪽.

없나. 왜놈 순사들이 옆구리 한쪽엔 일본도 한쪽엔 육혈포 차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으스스한 데서 험한 꼴 보면 어찌려고 그러냐. 저 몸을 해가지고 집에서 탕약 달여 먹고 누워 있으면 맞춤이겠구만. 예고. 정숙아, 정나가야겠거든 그저 뒷전에 서 있다 와라. 나라 구하는 일로 감옥살이하는 건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하다.”²⁸

허정숙이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을 지도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임신중이었다. 그에 앞서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도 신간회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라 허정숙의 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모두 일제의 감옥에 보내야 했다. 더군다나 허정숙이 임신한 몸으로 만세운동을 이끌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체념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그런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허정숙은 “겁님이라고는 약으로 쓸래도 도통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담담했다. 허정숙의 이런 태도는 송봉우가 “허 여사, 당신 무슨 해외유학 떠나는 사람 같소. 당신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형무소 가는 사람 처음 봤소”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하는 허정숙의 태도는 출옥 후 허정숙이 무장투쟁에 가담하게 되는 대담한 행보와 연계되어 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개인적인 안락함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 할 수 있는 혁명가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허정숙을 둘러싼 외부의 세계는 그녀의 항일운동보다는 사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대 언론은 허정숙이 수감생활 중 낳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해 관심을 쏟았고 자유연애를 실현했던 허정숙은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리며 스캔들로 소비되었다.²⁹

감옥에서 만기출소한 허정숙은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태양광치료소를 운영하며 생활했다. 그런데 돌연 허정숙은 1935년 최창익과 남경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민족혁명〉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정숙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

28 조선희, 앞의 책, 231쪽.

리를 들었다. ‘민족해방군’이라는 단어는 자극적이고 매혹적이었다. 정숙은 익숙한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안전하고도 진부했다. 박문희가 남경군관학교로 데려간 학생들은 지금 어느 전선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으로 중국 지도가 펼쳐졌다.³⁰

1930년대 초반 신간회를 비롯해 근우회 등 공산주의 계열 합법단체는 해산되었고 일제는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는 단체들도 모두 해산시켰다. 모든 사회운동이 지하로 들어가고 운동가들은 침묵했던 시기에 허정숙이 돌연 조선을 떠났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신념화한 토대 위에 젠더와 민족 문제를 결합시켜 활동한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혁명가 허정숙의 과감하고 열정적인 행보였다.

10년 동안의 무장투쟁을 끝내고 해방을 맞아 고향이 있는 남녘이 아니라 상을 따라 북을 선택한 허정숙은 김일성 내각의 출범에서부터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1956년 연안과 숙청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허정숙은 무장투쟁을 함께 했던 동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숙청을 피할 수 있었다. 한동안 내각에서 물러나 있던 허정숙은 1965년 복귀해 1989년까지 일선에서 활동했다.

“수령도 인간인데 동지의 비판을 받아야 발전하는데 장군님한테 바른

29 허정숙은 임원근이 감옥에 있을 때 송봉우와 연애를 한 사실 때문에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리며 ‘여성의 수절’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후 7명의 남편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조선 남성 지식인과 대중은 허정숙의 사생활을 소비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고 나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았고 1935년 잡지 『중앙』은 유영준, 우봉운, 정철성, 허정숙을 취재해 특집 기사를 실었다. “그 전 날 사회제일선상에서 화려하게 활약했던 제 여사들의 최근 심경은? 생활은? 어떠한가 현재에 느끼는 감상은 여하한가”가 질문이었다. 허정숙은 “간단하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뜻밖에 크”다,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장영은은 “허정숙은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금기시되었고 봉건적이고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 사회주의자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완강히 부정했다”고 분석했다. 장영은, 「생존과 글쓰기」, 『비교한국학』 제25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71-94쪽.

30 조선희, 앞의 책, 315쪽.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장군님 주위에 아첨꾼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장군님을 도우려면 아첨하면 안됩니다. 아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장군님도 힘들겠습니다.”

허정숙이 이렇게 말했다고 L씨는 전했다. 수령은 절대 잘못하는 법이 없다는 ‘수령의 무오류성’에 위배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그런 애길 할 수 있는 사람은 허정숙뿐이었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신망이 있고 국제공산당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라 당에서도 대접하면서 그대로 둔다고 했다. 그는 허정숙이 원칙이 강하고 이론이 정연하고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한국전쟁 직후 허정숙의 문화선전상 시절 그 아래서 부상을 했던 정상진이나 국장을 했던 박갑동의 회고담과 엇비슷하다.³¹

허정숙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활동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던 항일 공산주의자 여성으로는 드물게 한 시대를 통과하여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향해 ‘위험천만한 발언’을 무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소설 바깥의 현실에서 허정숙은 죽음을 앞두고 “장군님을 도우려면 아첨하면 안됩니다. 아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뒤집어 자손들의 안위를 최고권력자에게 부탁하고 있다.

자손들도 위대한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령님, 저의 자손들을 부탁드립니다. 잘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의 자손들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로 되시어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³²

허정숙이 임종을 앞두고 김일성과 김정일 앞으로 쓴 편지이다. ‘아첨꾼’들이 많

31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2, 367쪽.

32 『로동신문』, 1991.1.11.

다며 서슴없이 비판하던 허정숙이 정작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배반”³³하는 편지를 남겼다.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배반한 것은 그 이전에 허정숙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제작될 때 허정숙은 젊은 시절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렸던 연애담을 뺄 것을 주문했다. 당대에도 비난을 피해가지 않고 변명은 물론 설명도 하지 않고 오직 공적인 글쓰기를 고집했던 허정숙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수정하고 망각되기를 바랐다.

허정숙은 20세기 한반도 역사를 가로지르며 혁명과 정치의 중심에 서서 주체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었다. 신념을 위해 과감하게 고통스럽고 험한 길을 선택했고 사랑이 혁명을 배반하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는 삶의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북의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선 후 허정숙은 혁명가의 역할을 내려놓고 권력의 내부에 안착했다. 이렇게 볼 때 허정숙의 일생은 혁명가와 권력자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허정숙의 전 생애를 재맥락화하고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촘촘한 기록과 다양한 증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2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주세죽, 고명자

공산주의자 여성으로서 혁명적 열정을 실현한 허정숙과 달리 시대의 불운을 피해가지 못한 인물은 주세죽, 시대의 고난에 굴복한 인물은 고명자라 하겠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보다 ‘박헌영의 아내-주세죽’, ‘김단야의 애인-고명자’로 더 알려져 있다.

주세죽은 1901년 함흥에서 태어나 기독교계 영생학교에서 다니던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1개월 동안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그 후 함흥의 한 병원에서 1921년까지 근무했고 그해 상해로 가서 음악을 공부하던 중 박헌영을 만나 결혼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사회주의자로, 여성운동가로 여성동우회와 근우회에서 활동했다.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고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3주 동안 투옥되었다.

33 장영은, 앞의 글, 86쪽.

1928년 박헌영과 조선을 탈출하면서 딸 비비안나를 낳았고, 모스크바로 와서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1931년까지 공부했다. 1932년 딸을 모스크바의 보육원에 맡기고 박헌영과 상해로 가서 지하활동을 하던 중 박헌영이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되자 1934년 김단야와 함께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그리고 김단야와 결혼한 주세죽은 1937년 김단야가 일본의 밀정으로 몰려 사형당한 후 ‘사회적 위험분자’로 분류되어 크질오르다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1943년 형기가 만료되었지만 딸이 있는 모스크바로 이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1946년 박헌영이 살아있음을 신문에서 확인한 주세죽은 모스크바의 고아원에 자라고 있는 딸 비비안나 박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청원서를 보내 유형을 풀어 조선이나 모스크바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³⁴ 1953년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염려되어 모스크바로 갔다가 폐렴으로 사망했다.³⁵

주세죽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은 소련에 있는 「한베라 개인 파일」과 주세죽이 남긴 두 편의 글³⁶, 스탈린에게 보내는 청원서,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박헌영의 아내로 더 알려진 주세죽은 오히려 박헌영의 아내였기 때문에 증언을 확보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박헌영이 1939년 출옥한 후 주세죽을 죽은 사람이라고 주변에 말했고, 주세죽이 김단야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직 내에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³⁷ 그런 과정에서 주세죽은 동지들과 대중에게 잊혔고 해방 후 박헌영과 북에 있던 몇몇 사람들만이 주세죽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이 기록은 주세죽이 한베라라는 이름으로 김단야의 아내로 소련 내무인민부 국가보안총국에서 심문을 받은 조서에 나온 내용과 주세죽이 스탈린에게 제출했던 청원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 8』, 역사비평사, 2004, 912-928쪽.

35 주세죽이 크질오르다에서 유배형을 살았으며 1953년 사망했다는 사실은 1991년 비비안나 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36 주세죽은 「나는 단발을 주장합니다」(『신여성』 제3권 제8호, 개혁사, 1925.8.)와 「제일 미운 일 제일 보기 실흔 일—남자의 자기만 사람인 척하는 것」(『별건곤』 제10호, 개혁사, 1927.10.)라는 글을 남겼다.

37 박헌영과 정순년의 아들 원경의 증언.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앞의 책, 283-284쪽.

주세죽은 1920년대 박헌영의 아내로서 주목을 받은 데 더해 허정숙과 정종명, 정철성 등 공산주의자 여성들과 여성운동 및 항일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했던 ‘신여성’으로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주세죽은 ‘자유연애를 실현하는 신여성’이 아닌 박헌영의 아내, 혁명가의 아내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보위하며 헌신하는 ‘전통적인 아내’의 자리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심훈의 소설 『동방의 애인』(1930년)에서 재현된 주세죽은 “대리석으로 아로새긴 듯”한 똑똑한 얼굴의 소유자로 남편이 “지시하는 대로 스크랩북에 무산 계급운동에 관한 기사를 오려 붙이”고, 역시 남편의 지시대로 동지가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시험하는 일을 차분하게 해낸다.³⁸ 1925년 식민지 조선에서 주세죽은 남편 박헌영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 먹은 얼굴로 그리운 남편과 말 한 마디 못하고 서”있는 가련한 아내의 표상이었다.³⁹ 이 두 이미지는 ‘남편’을 위해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아내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훈정동 아지트키퍼 세죽은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숙은 그제 불만이 었다.

“너, 밥하는 거 배우려고 유학 갔니?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체제를 뒤엎자고 혁명하는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이율배반이야.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말이야.”

세죽은 남편의 비서 역할도 했다. 때로 금서를 빌려 와서 한 권 몽땅 노트에 옮겨 적는 일도 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

38 심훈, 『동방의 애인』, 글누림, 2016, 84쪽. 심훈의 『동방의 애인』이 박헌영과 주세죽을 모델로 했다는 임경석의 연구 참조.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생애』, 역사비평사, 2004, 72쪽. 박헌영과 심훈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기형의 논문 참조. 한기형, 「서사의 로컬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제6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425-447쪽.

39 『동아일보』, 1925.1.20.

여성동우회 사무실에서 세죽과 정숙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정종명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너희들은 1년 전에도 싸우더니만 아직도 결론을 못 냈어?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 경성역에 간다 치자. 어디로 가겠니? 황금정통이 걷기 좋다는 쪽도 있겠고 계다짜 소리 듣기 싫어 덕수궁 앞길로 돌아가겠다는 쪽도 있겠지. 기질 차이이고 취향 차이야. 정숙이가 하는 것도 세죽이 하는 것도 혁명운동이지.”⁴⁰

이 장면은 허정숙이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서 제약 없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주세죽이 조직의 책임자인 박헌영의 아내로서 남편과 조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수적인 일을 제 역할로 맡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숙과 주세죽은 상해에서부터 함께 학습하고 활동했던 사이로 충분한 사회적 활동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식민지 조선에 돌아와서도 함께 조직운동을 이끌었던 사이였다. 누구보다도 주세죽의 활동 역량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허정숙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기원이 오래된 성평등의 문제이며 혁명에서의 역할론이다. 원칙적으로는 계급해방과 함께 여성해방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활동해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역할로 치부되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현실은 허정숙과 주세죽이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서로가 처한 조건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정종명의 표현대로 같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허정숙은 흰하고 곧은 ‘황금정통 길’을 걷는 쪽이고, 주세죽은 ‘덕수궁 앞길’을 돌아가는 쪽이 된다.

주세죽이 박헌영의 아내로서 혁명가를 뒷바라지하는 역할이 표면화된 계기는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창립이라 하겠다. 고려공산청년회 창립대회는 박헌영과 주세죽의 집에서 열여덟 명이 모여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 주세죽은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중앙위원 후보 7명 중의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40 조선희, 앞의 책, 134쪽.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죽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가 간부가 되
건 후보위원이 되건 아무래도 좋았다. 아지트키퍼라 불리건 하우스키퍼
라 불리건 상관없었다. 이런 일이라면 평생 기꺼이 밥을 해대고 국수를
삶을 것이다.⁴¹

여기서 주세죽은 “혁명운동의 캠프”가 된 자신의 집에서 비밀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며 혁명에 대한 열정을 확인했다. 이처럼 역사적인 날 조선의 혁명
을 이끌어 갈 조직을 위해 열여덟 명의 국수를 삶아내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었
다. 혁명운동의 주역들을 먹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 또한 혁명운동의 필수적
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세죽은 비가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역할
을 맡은 공산주의자 여성의 내부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 여성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이 여성들을 남성 혁명가에
종속된 비주체적인 존재로 대상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하
우스키퍼’, ‘아지트키퍼’로 불리면서 극대화되었다. 그런데 하우스키퍼와 아지트
키퍼는 주세죽의 국내 활동시기가 아니라 한 세대 뒤 등장한 1930년대 공산주의
여성들과 관련이 있다.⁴² 하우스키퍼의 개념이 과거로 소급되어 적용된 것은 가
부장적인 식민지 조선에서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혁명을 위한 주체적 선택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주세죽의 시선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되
었던 시대적 제약을 드러내는 한편,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감수하며 혁명운동에
매진했던 공산주의자 여성들의 혁명적 열정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주세죽이 상해에서 사상을 학습하고 박헌영과 조국의 혁명을 다졌던 주체

41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1, 120쪽.

42 하우스키퍼는 일본 공산당이 당 간부에게 젊은 여성 당원을 짝지워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제
도 또는 관습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0년대 하우스키퍼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재유
의 하우스키퍼였던 박진홍과 이순금은 ‘연적과 동지’로 당대 스캔들로 회자되었다. 이상경
은 박헌영의 하우스키퍼였던 정순년을 예로 들어 하우스키퍼의 반여성성과 억압성을 비판
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래 논문 참조.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경성 폼그룹 관련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제10호,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
2006, 49-80쪽; 장영은,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제6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85-214쪽.

적인 모습과 달리 경성에서 ‘가련한 아내’의 표상이 된 것도 사회적 제약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위장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락된 유일한 행위이라는 중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⁴³

박헌영의 헌신적인 아내라는 주세죽의 표상은 박헌영이 심신상실로 가석방되어 요양을 다니다가 조선을 탈출할 때까지 이어졌다. 만삭의 몸으로 국경을 넘다가 딸을 낳은 주세죽은 다시 조선 땅을 밟지 못했다. 주세죽은 박헌영과 조선으로 다시 잠입하기 위해 상해에 머물던 중 박헌영이 체포되자 몇 달 후 1934년 김단야와 상해를 탈출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후 주세죽은 코레예바가 아닌 한베라⁴⁴가 되어 김단야의 아내에서 유형수로 크질오르다에 유배되면서 조선의 혁명가로서 정치적 생명은 스러졌다. 또한 주세죽에 대한 기록도 기억도 오랜 시간 동안 망각되었다.

주세죽이 상해에서 모스크바로 탈출한 이후 약 20여 년 동안의 행적은 소련에 남아있는 「한베라 개인 파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세죽이 소련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남긴 자기서사는 1946년 스탈린에게 보내는 청원서가 유일하다.

저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박헌영 동지의 처입니다. 본인 한베라는 1901년 조선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했습니다. 1922년 저는 박헌영 동지에게 시집가서 딸 박 비비안나를 낳았는데, 그녀는 현재 17세로 모스크바에서 발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922년에서

43 임정연에 따르면 주세죽이 상해에서 사랑과 혁명을 다졌던 모습이 경성에서 ‘가련한 아내’로 등장하는 것은 공산당 조직을 막기 위한 위장술이기도 하지만 완고한 조선사회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역할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정연, 「망명도시의 장소 상실과 좌초하는 코즈모폴리탄의 초상—주세죽과 상해, 그리고 모스크바」, 『국제어문』 제 77호, 국제어문학회, 2018, 41-42쪽.

44 코레예바는 ‘고려여자’라는 뜻으로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에 체류할 때 사용한 이름으로 박헌영이 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베라는 김단야와 모스크바로 돌아와 사용한 이름으로 베라는 ‘믿음’이라는 뜻이다. 임정연은 주세죽의 러시아 이름에 쓰인 이질적 기표는 ‘조선여자’라는 기의에 귀속된 것으로 모스크바에서 주세죽이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정연, 앞의 글, 35쪽.

1934년까지 저는 남편 박헌영 및 김단야와 함께 조선에서 비합법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4년 제 남편 박헌영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후 저는 김단야와 함께 일제 경찰의 야수와 같은 추적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저는 김단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출판부에서 책임 교정원으로 일했습니다. 1937년 11월 5일 김단야가 체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5년간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943년 유배형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저는 12년 동안 제 남편 박헌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상황은 저로 하여금 김단야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프라우다』 신문을 통해 제 남편 박헌영이 살아 있으며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제 남편 박헌영을 통해 저에 대해 확인하셔서 제가 조선에서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게끔 저를 조선으로 파견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진정 충실하게 일할 것이며 제 남편을 이전과 같이 보필할 것입니다. 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만일 제가 조선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모스크바에서 살며 제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빕니다. 제 딸 박 비비안나는 지금 제136학교에서 제9학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요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간절히 빕니다. (밑줄: 인용자)

—1946년 5월 5일 한베라⁴⁵

이 청원서에서 주세죽은 조선과 소련에 남아있는 심문자료와 유사하게 자신의 일생을 건조하게 요약하고 나서 “조선에서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선으로 파견해 줄 것을 간청한다.⁴⁶ 여기서 외국인이며 유배자였던 디아스포라

45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앞의 책, 922-923쪽.

46 장영은은 주세죽의 청원서가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돌아가야겠다는 요청하는 글을 쓰는 행위 속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찾게 된 것이 아닌가 분석하며 주세죽의 청원서가 ‘복권

로서 주세죽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⁴⁷ 가부장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탈린체제의 억압을 겪은 주세죽은 그 체제가 수용가능한 문법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다. 과거의 인연 박헌영을 소환한 것이다. 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세죽은 딸로부터 모스크바에 온 아버지 박헌영을 만났다는 편지를 받았다. 주세죽은 딸에게 청원서를 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청원서는 1년 후 기각되었다. 박헌영이 주세죽의 청원서에 관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상황에도 주세죽은 침묵했다.

정숙은 어느 날 소련대사관에서 뜻밖에 세죽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세죽이 조선의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스탈린에게 청원해서 최근 소련공산당 중앙위가 박헌영의 의사를 물어왔다 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의사에서 벌떡 일어났다. (…)

소련 영사는 박헌영이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정숙은 분노로 몸이 달아올랐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⁴⁸

허정숙은 주세죽의 처지를 외면한 박헌영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인 주세죽은 이후 어떤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 주세죽이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과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⁴⁹ 그

(復權)’을 신청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은, 「귀환의 시간과 복권(復權)」,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48쪽.

47 주세죽은 소련에서 민족 여권 없이 외국인 증명서로 생활했다. 소련공민권을 취득하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경석, 「잡지 《콤무니스트》와 국제선 공산주의그림」, 『한국사연구』 제126호, 한국사연구회, 2004, 177-201쪽.

48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2, 155쪽.

49 손석춘의 소설 『코레예바의 눈물』은 주세죽이 자필로 남긴 원고를 우연히 입수한 것으로 시작하여 주세죽을 박헌영의 아내라는 자리에 주종관계로 못 박으면서 죽음을 앞둔 주세죽이 박헌영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비판적 연구는 아래 논문 참조. 임정연, 「실명소설의 서사권력과 목소리 복원의 난경—『검은 땅에 빛나는』과 『코레예바의 눈물』의 경우」, 『어문연구』 제46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293-318쪽.

것은 “마음의 상처는 류반카의 지하실처럼 깊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⁵⁰ 그러나 주세죽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비운의 운명을 가진 개인의 ‘마음의 상처’로만 볼 수는 없다. 주세죽이 조선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 활동했던 ‘정치적 주체’였다가 박헌영의 체포와 김단야의 처형으로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삶의 주체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상기하면 스탈린에게 쓴 청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서발틴이 ‘정치적 주체’임을 주장하는 발화방식에 해당한다. 주세죽의 이 발화방식은 40여 년이 지나 딸 비비안나 박이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 나가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잊혀진 혁명가 주세죽은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아내”라는 이유로 주체적 삶의 궤적이 망각되고 굴절되어 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명자의 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명자는 1904년 판사 출신 변호사 고의환의 딸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으며 1923년 정철성이 조직한 대구여자청년회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⁵¹ 『세 여자』에서 고명자가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외동딸답게 애교가 넘치는 아가씨”로 “세죽이 명자에게 사상공부 시킬 과외 선생으로 단야를 붙여주”어 “단야가 과외 선생이 되자마자 보름도 안 되어 이 양반집 규수를 마르크시스트로 개종시켜”놓았다고 되어 있다.⁵² 공산주의자 남자를 만나 공산주의로 ‘개종’한, 연애가 만들어낸 공산주의자 여성을 표상하는 인물이 고명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고명자는 소설과 달리 대구에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이미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서울에 올라와 조선총독부 조산부과에 다니면서 여성동우회에 참여하고 나서 김단야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 思想에 共鳴 그 다음에 性格에 共鳴 그 다음에 全部에 公明’⁵³했다니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⁵⁴ 그런데 『세 여자』에서 재현된 고명자는, “자수가 놓인 비취색 모시 한복”을 입고 시중드는 아이를 데리고 여성동우회 사

50 조선희, 앞의 책, 112쪽. (류반카의 지하실은 김단야와 주세죽이 모스크바에서 감금당한 채 신문을 받았던 곳이다.)

51 이성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고명자의 생애와 활동」, 『인문학연구』 제8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50-251쪽.

52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1, 96쪽.

53 「현대여류사상가들(3)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삼천리』 제17호, 삼천리사, 1931, 7.

무실에 등장하면서 ‘김단야의 애인’이 되어 마침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비주체적 여성의 표상으로 기능한다. 당대에 언론이 고명자를 보는 시선보다 후퇴해서 애인의 사랑에 기대어 사상을 수용한 여성이 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명자의 모스크바 유학은 사랑에 빠져 가족과 풍요한 생활을 버리고 혁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김단야가 “유학생 21명 명단에 명자를 집어넣”어서 가게 된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유학생생활에서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것이 스물다섯 순진한 아가씨를 흥분시키고 있었”으며 김단야의 아이를 낳기를 소망하는 철부지 아가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고명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기록과 증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진위여부는 가릴 수 없지만 소설에서 재현된 고명자는 1930년대 소설에서 선정적인 육체로 형상화되었던 ‘모던 걸’의 표상과 일치한다. 그에 반해 이성우는 검찰사무기록을 근거로 고명자가 ‘장래 여성운동의 맹장’으로 일제의 지목을 받았다는 점과 학업에 대한 의지가 커서 조선총독부의원 조산부과를 다니며 전기통신이나 사회학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고명자가 공산대학의 유학을 학업의 기회로 삼았던 사회주의자 여성이었을 것으로 보았다.⁵⁴ 소설에 재현된 고명자와 연구자가 구성한 고명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할만큼 큰 간극을 가진다.

고명자는 1929년 5월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0월 귀국해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을 하다 1931년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관련자 23명이 모두 실형을 받은 것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었다. 이 일로 동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으나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1933년 다시 구속되었을 때 전향서를 쓰고 공산주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1939년 이후 『동양지광』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 소극적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방을 맞아 고명자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동참했다. 전향과 친일의 행적 때문에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여운형의 비서로, 여운형이 피살된 후

54 장영은은 “공산주의자에게로 가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모양”이라며 당대 신여성을 비난한 김기진의 주장에 대해 여성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서 공산주의자에게로 간다”고 비틀었다. 장영은, 앞의 글, 190쪽.

55 이성우, 앞의 글, 256-257쪽.

로는 근로인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남로당 프락치로 검거되었다.⁵⁶ 그리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직후 서울 근로인민당 사무실에서 고명자를 보았다는 증언을 끝으로 어떤 기록도 기억도 남아있지 않다.⁵⁷

『세 여자』에서 고명자는 “한 남자를 기다린 세월이 허망하고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웠다”고 기억하며 인공치하의 서울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아사했다고 끝을 맺는다. 고명자의 경우 또한 주세죽과 마찬가지로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명자가 과연 ‘남자’의 사랑과 배신 때문에 자신의 혁명적 활동을, 정치적 주체로 살았던 과거를 허망한 것으로 치부했을까 의문이 든다. 비록 전향하고 친일행보를 보였지만 해방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사회적 활동을 이어왔던 데서 정치적 주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명자는 김단야의 애인 이전에 한 사람의 주체였으며 혁명가였던 것이다.⁵⁸

『세 여자』는 1920년대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인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를 중심으로 당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던 정종명, 정철성, 김명시 등의 공산주의자 여성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허정숙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공산주의자 여성과 달리 허정숙은 풍부한 기록과 기억의 자원으로 일대기를 구성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항일운동, 계급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에서 주체적인 행보를 거듭했던 여성으로 그 걸출함은 여성사에서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주세죽과 고명자에 대해서는 참고할 기록도 적고 증언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이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은 까닭에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당대의 신여성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3 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서발턴이 된 여성 혁명가들

56 『동아일보』, 1950.2.7.

57 이정식, 『여운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785쪽.

58 고명자가 김단야를 만나 사회주의자가 되었는데, 사회주의자로 김단야를 만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없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계기로 공산주의자가 되었든 자기 삶의 운영을 스스로 했다면 주체적 삶을 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세 여자, 허정숙·주세죽·고명자를 재현함에 있어 ‘볼 수 없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공산주의자 여성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허정숙의 경우 해방 이후 북에서 생활했음에도 생애사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을 할 수 있을만큼 많은 기록과 증언이 남아있다. 앞으로 북에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세죽과 고명자는 부재한 자기서사를 뒷받침할 기록과 증언도 미미한 현실적 어려움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노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공산주의자 여성의 재현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서사를 재현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비단 자기서사의 부재와 기록의 부족만이 아닐 것이다. 주어진 시대적 조건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 파편으로 존재하는 기록과 증언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으로는 주세죽과 고명자같은 공산주의자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주세죽은 왜 자기서사를 남기지 않았을까. 왜 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혁명을 꿈꾸었던 젊은 시절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무엇이 그녀에게서 언어를 빼앗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고명자는 전향했음에도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가지 못한 것일까. 해방 후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월북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왜 월북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정치활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들의 끝에는 그들이 과연 말하지 않은 것인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스피박은 부바네스와리 바두리라는 처녀의 죽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면서 서발턴이 말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부바네스와리 바두리는 자살할 때 생리중이었기 때문에 처녀로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렸던 것이다. 그녀가 죽은 후 10년이 지나서야 자살한 이유가 밝혀졌다. 민족주의 계열의 비밀조직에 속해 있던 부바네스와리 바두리는 정치적 요인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인을 할 수 없음’과 ‘조직에 대한 신의’의 간극에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했다. 스피박의 표현대로 “자신의 육체를 여성/글쓰기의 텍스트로 바꿈으로써 ‘말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⁵⁹

서발틴이 말하는 방식을 빌어 다시 주세죽의 청원서를 보면 명료한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한 문장들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주세죽은 자신이 했던 일을 나열할 때 ‘저는’이라는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단 하나 김단야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상황은 저로 하여금 김단야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함께 살았다’는 표현으로 김단야와의 결혼을 부정하고 있다. 능동적인 주체로 말하던 주세죽이 그 문장에서는 스스로를 수동적인 비주체로 만들어버렸다. 유배형이 처해질 때 심문조서에도 김단야와 결혼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세죽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박헌영과 결혼했고, 김단야와는 함께 살았다고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청원서를 읽는 사람이 스탈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닐까? 주세죽과 결혼한 사람, 박헌영에게 보내는 청원서는 아닐까. 신문에서 박헌영이 살아 있다는 기사를 본 주세죽은 몇 달이 지나서 이 청원서를 썼다. 그 시간 동안 주세죽은 박헌영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었고 청원서가 박헌영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박헌영의 의사에 달려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박헌영의 아내라는 자리가 주세죽의 삶에서 혁명가, 여자, 어머니의 자리를 모두 억압하고 있었던 기제는 아니었을까 의심해 볼 수 있다.

박헌영과 만나 헤어질 때까지 주세죽은 박헌영의 활동을 내조하고 보살피는 아내의 역할에 충신했다. 박헌영이 체포되고 나서 혼란스러운 몇 달 동안 주세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세죽은 모스크바로 돌아가 김단야와 결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빼앗겼다. 김단야의 아내라는 자리가 주세죽을 유배형에 처하게 했고 유배지를 떠날 수 없는 유형자 주세죽은 딸을 보러 갈 수 없었다. 형기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딸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주세죽에게 박헌영의 등장은 어머니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기도 했

59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133-137쪽.

다. 청원서에서 주세죽은 조선으로 가서 다시 혁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딸 옆에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주세죽은 조선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요청에 ‘박헌영을 이전과 같이 보필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필의 사전적인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다. 사적 관계에 있는 ‘남편’의 일을 공적인 일로 ‘보필’한다는 주세죽의 문장은 미래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그들의 관계를 가리킨다. 박헌영의 아내라는 자리가 주세죽에게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었음을 박헌영에게 상기시키고 ‘남편을 배신한 아내’가 아니라 조직운동을 함께 했던 사회적 관계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박헌영에게 주세죽은 사적 언어가 아니라 공적 언어로 간청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서는 기각되었고 주세죽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식인 혁명가 주세죽이 크질오르다에서 언어를 소멸당한 서발턴이 되어 사라졌다.

한편,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자 여성들에 대한 증언이 공산주의자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남아있는 것도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여성이 서발턴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심해 본다. 분단과 전쟁으로 조선공산당의 조직과 활동, 구성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을 때 그 정보의 원천이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당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공산주의자 여성들에 대한 증언의 다수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로 기억되었으며 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증언자들의 기억의 회로에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언을 듣는 사람이 그 여성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전쟁발발 직후 고명자를 근로인민당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증언자는 그에 앞서 해방 직후 여운형의 집에서 고명자를 보았다는 증언도 했다. 단박에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질문자는 고명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았고 증언자는 고명자를 지나치고 말았다. 얼굴을 보고 알아차릴 정도로 꽤 알려져 있던 고명자였는데 증언을 남길 기회도 그렇게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신여성이며 공산당원으로 대중에게도 알려져 있던 여성들이 당대에 스캔들로 소비될 수는 있었지만 역사에 기록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의 길을 걸었음에도 식민지 조선

의 공산주의자 여성들은 다수가 서발턴이되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공산주의자 여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기록은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침묵당한 공산주의자 여성들의 서사를 보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언어와 비언어를 가로질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포획할 수 있는 ‘듣는 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조선희, 『세 여자—20세기의 봄』 1, 한겨레출판사, 2017, 1-397쪽.
——, 『세 여자—20세기의 봄』 2, 한겨레출판사, 2017, 1-377쪽.

단행본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33-247쪽.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98-109쪽.
심훈, 『동방의 애인』, 글누림, 2016, 84쪽.
이정박현영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현영 전집8』, 역사비평사, 2004, 912-928쪽.
이정식, 『여운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785쪽.
장영은, 「서문—자기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의 탄생」, 나혜석,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민음사, 2018, 8-9쪽.
조선헌병대사령부 편, 『조선3·1독립소요사건』(소화 44년), 암남당서점, 1969, 447-448쪽.
허근욱, 『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2001, 223쪽.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133-137쪽.

논문

- 강혜경,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0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81-117쪽.
- 권수현, 「허정숙의 여성론 재구성」, 『페미니즘 연구』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2010, 247-283쪽.
- 김경일,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미국 체험과 문화 수용—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1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49-91쪽.
- 김정인, 「3·1운동과 그 이후, 여성의 현실 참여」, 『인문과학연구』 제28호,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1-36쪽.
- 박순섭, 「1920~30년대 정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제26호, 한국여성사학회, 2017, 245-271쪽.
-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 제3호, 한국여성연구회, 1992, 278-287쪽.
-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학논총』 제5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385-414쪽.
- 송진희,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41쪽.
- 신영숙,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166-177쪽.
- 오혜진, 「서평—여성혁명가 서사와 ‘사회주의’라는 오래된 미래—조선희의 『세 여자—20세기의 봄』 1·2」,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9-385쪽.
- 이꽃매, 「일제강점기 산파 정중명의 삶과 대중운동」, 『醫史學』 제21권 3호, 대한의사학회, 2012, 551-591쪽.
-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10호,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 2006, 49-80쪽.
- 이성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고명자의 생애와 활동」, 『인문학연구』 제8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47-274쪽.

- 이소희, 「‘나’에서 ‘우리’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89-148쪽.
- 이에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한국여성연구소 기타간행물, 한국여성연구소, 1989, 255-280쪽.
- 이혜령,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제6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1-118쪽.
- 임경석, 「잡지 《콤무니스트》와 국제선 공산주의그룹」, 『한국사연구』 제126호, 한국사연구회, 2004, 177-201쪽.
- 임정연, 「망명도시의 장소상실과 좌초하는 코즈모폴리턴의 초상—주세죽과 상해, 그리고 모스크바」, 『국제어문』 제77호, 국제어문학회, 2018, 31-56쪽.
- _____, 「실명소설의 서사권력과 목소리 복원의 난경—『검은 땅에 빛나는』과 『코레예바의 눈물』의 경우」, 『어문연구』 제4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293-318쪽.
- 장영은, 「귀환의 시간과 복권(復權)」,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37-63쪽.
- _____, 「생존과 글쓰기」, 『비교한국학』 제25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71-94쪽.
- _____, 「아지트 키퍼와 하우스 키퍼—여성 사회주의자의 연애와 입지」, 『대동문화연구』 제64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85-214쪽.
-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 367-419쪽.
- 한기형, 「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 『동방의 애인』」, 『대동문화연구』 제63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425-447쪽.
- 허정숙, 「울 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별건곤』, 제10호, 개벽사, 1927.12, 74-77쪽.

Abstract

Anti-Japanese Communist Women's Narrative Represented in
Cho Sun Hee's "Three Women"

Park, Sung-eun

The women of anti-Japanese movement and communism in colonial Joseon were recreated in Cho Sun Hee's novel "Three Women". Anti-Japanese Communist women, who emerged as new political subjects in the 1920s, were consumed not as revolutionaries or activists of the day, but as protagonists of dating scandals. The representation of these women, who remained sexual rather than political, was accepted for a long time. Communist women who had long been forgotten and silenced in the divisions remained transmitted as symbolic representations in the 1920s and 30s and had no chance of being modified for a long time. In that sense, The Three Women, which independently reproduced Communist women not only in anti-communist times but also in literature,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restore the forgotten history. However, because the observers have been 'unable to see' narratives of communist women due to the absence of records and 'invisible' due to the loss of memory, it is difficult to reproduce them now beyond time and space. It is because they do not know how to put the communist woman, who is the subject of the records and memories of the time, in the place of the subject. In the Three Women, Huh Jung Sook consistently occupies the subject in his life and history, while Ju Se Juk and Go Myung Ja lost their position in frustration in the face of bad times. As a result, it coincides with the contemporary representation of these three women who had been created before Hur Jung Suk, Ju Se Juk, and Go Myung Ja became invisible in colonial Joseon. Over time, the three women's self-narration, historical records, and testimony left behind in the course of their disappearance in colonial Joseo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production of their narratives. Communist women lacking self-narration and testimony need a window of awareness where their narrative can be heard in order for their narratives to be reproduced.

Key words: Huh Jung Suk, Ju Se Juk, Go Myung Ja, Communist women, Political subject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